

신진작가(新進作家) A군에게

A군. 그대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을 이렇게 잡지에다 공개하는 것을 용서하게. 이리하지 아니치 못할 사정이 있네. 그 사정을 알면 군도 응당 군의 그 독특한 쓴 냉소 하나로 나를 용서하여 줄 거네. 사실인즉 약 1주일 전에 《조광(朝光)》편집 선생에게서 「신진작가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을 쓰라는 분부를 받았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부끄러운 원고의 분부를 받은 적이 없네. 신진작가에게 충고를 하자면 적어도 3, 40년의 문단 경력을 가진 노대가여야겠고, 또 그 충고가 힘이 있자면, 신진작가가 그의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일 만큼, 그가 신진작가의 존경을 받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네. 그런데 나는 문단 경력은 그만두고 내 나이를 통털어야 이제 겨우 30이요, 존경은커녕 냉소, 고소, 조소, 민소(憫笑), 있는 대로 온갖 웃음을 다 사고 있는 기막힐 존재일세. 내 어찌 그런 분부를 받고 부끄럽지 않겠는가. 어찌 감히 붓을 들 수 있겠는가.

이러던 차에 오늘 아침에, 군에게서 군이 이 달에 세 잡지와 두 신문에 글을 썼다는, 그리고 그중 한 잡지에는 「신진작가로서 기성문인에게」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중에서 이리이러한 조목을 들어서 기성문인들을 통렬히 매도하여 주어, 요사이 며칠 대단히 「가슴이 후련하다」

는, 그리고 불일간(不日間) 그 잡지가 나올 테니 그때는 너도 정신 차려 읽고 크게 반성하는 바가 있으라는 편지를, 그야말로 반가이 받아, 재독, 3독했네.

먼저 군이 문단에 등장한 지 불과 반년에, 기성문인에게 공개장을 쓸 만큼, 당당한 신진작가로 출세한 데 대하여 경축하네. 그리고 군이 5, 6개월 동안을 매월 5, 6편씩의 작품을 창작해 내는 그 정력과 문학적 실력에 감탄하네. 그리고 또 하나 이대로 군이 문단활동을 계속하면, 이제 불과 2, 3년에 당당한 「기성문인으로 신진작가에게 보내는 글」을 쓸 만큼 출세할 것이요, 그때 군의 나이는 지금 나의 나이보다 다섯 살이나 어릴 테니, 새삼스레 군의 천재에 놀라 마지않네. 그러고 보니 내가 이 기회를 잃으면 영원히 기성문인 행세를 못해 보고 말겠네.

그래서 나는 천재일우의 이 기회에 군에게 한번 톡톡히 기성문인 행세를 해두기로 하고, 감연히 붓을 들었네. 그런데 처음에는 군에게 사신으로 쓰려던 것이, 쓰다 생각하니 한번 기성문인 행세를 할 바에야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보람이 있을 듯해서, 다시 한 번 없는 용기를 다 모아 잡지상에다 공개하기로 했네. 그러면 이것으로 편집 선생의 명령에도 거역하지 않는 바가 될 테니 이야말로 일석이조일세. 자 이제부터 돌을 던지겠네.

요사이 군의 득의해 하는 품이야 내 비록 멀리 있으나 가히 짐작할 수 있네. 좋네. 자네의 그 올라간 오른편 어깨를 얼마든지 더 올려도 좋네. 그러나 다만 「내가 이만하면 세계 어느 문단에 나서도!」 하는 생각만은 아예 군의 머리 속으로 침입 못하도록 하게. 내가 이런 객적은 소리를 하는 것은, 무슨 군의 출세를 시새워 그러는 게 아니라, 군이 늘 조선적으론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선에서 당당한 신진으로 인정을 받은

요즘음, 군의 궁지가 「요만하면 조선에서는……」에 그치지 않고, 「요만하면 세계 어느 나라 문단에 나서도……」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위구(危懼)에서이네. 그리고 내가 이런 위구를 갖는 것은 군으로 하여금 턱없는 세계적 대작가니 하는 야망을 버리게 하자는 주제넘은 생각이 서가 아니네.

진실로 그 반대로 군으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세계적 야망에 불타게 하고, 또 그리하여 끝내는 세계적 대가가 되게 하려는 열렬한 염원에서이네.

군의 요사이의 그 조그마한 조선문단적 궁지로 하여금 군의 세계문단적 포부를 만족시켜서야, 군은 너무나 쉽사리 세계적 대가가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나는 그리하여 자칭 세계적 대가가 된 우리 문단의 몇몇 용사를 알고 있네. 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문단 전체를 위해서도 대단히 슬퍼할 사실이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쉽사리 세계적 대가가 되지 않았던들 그들은 훨씬 더 정진하였을 것이요, 따라서 지금쯤은 세계적 대가는 몰라도 세계적 신진쯤은 되었을는지도 모르네. 이것이 슬픈 사실이 아닌가.

대가니, 중견이니, 신진이니 하는 것은 그의 작품의 질로 따질 것이요, 연령으로 따질 것이 아닐 게네. 하나 우리가 어느 작가도 그의 문학적 정진을 따질 때는 그를 연수로 따라 그의 연령으로 헤이는 것이 근사할 때가 많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서 지금 노대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외국 가면 겨우 신진 소리를 들을 연배요, 중견이라는 사람들이 겨우 동인잡지나 하고 신문·잡지 편집자나 찾아다니고 할 문학 청년기에 있을 사람들이요, 미안하나 당당한 신진작가일 그대쯤은 동인잡지 동인들이나 찾아다닐 나이라는, 이런 기막히는 사실이 우리에게 반성할 재료가 되고, 문학적 정진의 채찍이 될 수도 있네.

그리고 이 사실을 거울삼아 그대 품안에 넣어두고 가끔 들여다본다면, 신진작가를 대우할 줄 모른다는 기성문단에 대한 군의 그 열렬한 불평불만을 잊고 마음의 평정을 얻는 효험을 볼 게네. 하기가 우리 문단에서 증견이니, 대가니 하는 사람들이 군의 눈에 비치는 바와 같이 대견스럽지 못하네. 그러나 그들이 대견스럽지 못하다면, 그리고 군의 이상이 세계적 작가에 있다면, 그들에게 대우를 못 받는 데서 무엇 그렇게 분개할 게 있는가. 그리고 또 과연 그들이 그렇게 군을 또 군과 같은 신진들을 소홀히 대접하던가? 아닐세.

문단이란 곳은 절대로 실력대로 갈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하고 음모, 책략, 질투, 모함, 이런 것이 사회의 딴 어느 부문만 못지않게 발호하는 곳이기도 하나, 그러나 또 걸작 앞에는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풍습을 가진 곳일세. 김유정씨, 최명익씨, 허준씨, 김시중씨, 현덕씨, 그리고 최근에는 군이 얼마나 문단에서 절을 받았나를 생각해 보게. 군이 「문단에서 신진작가를 대우할 줄 모른다」고 분개할 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알고 싶으이.

말이 예까지 미치매 문득 「한 작가의 실력이란, 그의 작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나네. 위에서 말한 사람들의 작품이 몇 편씩이나 되나를 생각해 보게. 허준씨는 단 두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을 뿐이네. 최명익씨도, 현덕씨도, 5, 6편을 넘지 못하네. 김시중씨도 10편을 넘지 못하네. 김유정씨는 위에 말한 네 사람보다는 많으나, 그가 당당한 작가로 인정되기는 <소낙비> 한 편으로였네. 그리고 그의 작품을 딴 증견작가라는 사람들의 작품과 비길 때에는 결코 많은 축이 못 되네. 결국은 무가치한 작품을 얼마든지 자꾸만 발표하지 말고, 1년에 한 편 혹은 두 편을 쓰더라도 좋은 작품을 쓰라는 말이네. 따라서 군이 이달에 다섯 편의 작품을 썼다는

데에 나는 다소 위구의 염이 없지도 않네. 2, 3년 전에 어느 잡지의 「하루에 몇 장씩이나 원고를 쓰십니까?」 하는 질문에 몇몇 중견작가 내지 대가가 「나는 한 시간에 4, 50매는 문제없이 쓰오», 「나는 하루 밤에 작품 한 편은 쓰오», 이런 대답을 한 것을 보았네. 그날부터 나는 그들의 작품은 아주 마음놓고 읽지 않기로 했네. 나는 군이 이달에 발표한 다섯 편 작품이, 한 시간에 4, 50매의 스피드로, 하루 밤 새에 써낸 작품들이 아니기를 빌어 마지않네.

군의 이번 편지에서 다작·다독주의로 작품을 열심히 쓰는 외에, 또 신문·잡지에 게재되는 작품, 논설, 수필, 기행, 온갖 종류의 글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 늘 새로운 사상이나 경향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또 요새는 정치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이 또한 다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단에도 탄 사회서나 마찬가지로 유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 두게. 유행이라는 것은 늘 표면에 그치는 현상이요, 또 잠깐만에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며, 지나간 후에 유행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으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허망과 회한만을 남기고 가는 것이네. 따라서 군이 이후에 허망과 실망과 회한에 울지 않으려면, 유행 사상과 경향을 따르기에 급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네. 그리고 그리함에는 신문·잡지를 읽는 시간을 고래(古來)의 위대한 작품을 읽는 데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네. 그런데 고래의 위대한 작품이란 대개가 외국작품이네. 그러니 그것들을 읽으려면 아무래도 외국어를 알아야겠네. 번역으로도 못 읽을 바 없는 게 아니나, 한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해 놓을 때 그 작품이 얼마나 그 향기와, 여운과, 미를 잃는가를 군도 잘 알고 있을 줄 아네. 그러니 적어도 2개 국어쯤은 원서를 읽는 정도로 외국어 공부를 해 두게. 그리고 외국어 공부는 또한 군에

게 조선어의 독특한 어운과, 어법과, 미를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도 알아 두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자국어도 모른다」는 어느 외국 사람의 말을 나는 굳이 믿네.

끝으로 군의 정치적 관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고 그만 두겠네. 작가가 정치적 관심을 갖는 것은, 작가의 창작행위에 있어서 도움은 될지언정 방해는 결코 되지 않으리라고 나도 믿네. 그러나 작가의 정치적 관심이란, 정치가의 정치적 관심과는 그 성질이 달라야 할 줄 아네. 정치가의 정치적 관심이란 언제나 그의 실제적·정치적 활동으로서 나타나네. 그러나 작가의 정치적 관심이란 그의 작품 속에서, 그 작품 속의 인물의 피와 살로 되어 나타나야 하네. 그러므로 작가의 정치적 관심이란 결국 관조적 태도에 지나지 않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정치적 관심이 이 한계를 넘는 수가 많네. 그래서 펜을 던지고 정치무대로 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유능한 문인을 한 사람 잃은 것뿐으로, 문학 그것이 그것으로 하여금 별로 피해는 입지 않네. 그런데 정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문학작품을 쓸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문학이 받는 피해는, 그로 하여 받는 이익보다 더 클 때가 많네. 그것은 그들이 부적인 문단정치를 하려고 할 뿐 아니라, 개념을 나열하여 놓고는 그것을 진정한 문학이라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시위를 하기 때문이네. 이것은 굳이 가까이 조선의 몇 해 전 문학사를 회고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두어야 하겠으나 군의 평론가에 대한 그 불같은 불평불만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해야 꼭 마음이 시원할 것 같네. 평론가에 대한 군의 불평불만의 태반은, 굳이 사상이나 경향의 유행을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 준비만 되면 사라지고 말 것이네. 평론가

란 속속은 늘 경향이니 사상이니, 이런 것을 말해야 하고, 또 그리하기를 좋아하는 속속일세. 그런데 조선문단에는, 이 땅에 뿌리를 박은 진정한 사상이니 경향이니 하는 것이 없네. 그러면 잠자코 있으면 할 테지만, 성미 급한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하는 모양일세. 그래서 곧 외국의 사상이니 경향이니 하는 것을 소개하네. 그러나 이 땅에 뿌리를 박지 못했으므로 소개하는 것쯤으로는 실감이 없네. 그래서 실감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이것들을 곧 조선문단의 경향이나, 사상으로 믿고 또 남에게도 믿도록 하려고 하네. 군은 평론가들이 「세기의 불안」이니 「인간 창조」니 할 때에 그들의 비장하고 엄숙한, 그러나 어딘지 군의 웃음을 자아내는 그 표정들을 보았는가. 군의 평론가에게 대한 불평불만의 태반은 그들의 이런 표정에, 아무리 군이 그리하려고 애를 써도 동감이란 되는 안타까움에서 오는 것일세. 그러니 군의, 그들의 아침저녁으로 아니 시시각각으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그런 표정들에, 일일이 동감해 가려는センチ멘탈리즘만 버리면, 군은 그들의 그런 표정들을 보고 마음 놓고 웃을 수가 있을 것이요, 그리할 때 군의 그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대부분 발산되고 말 것이네. 그래도 또 그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남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군의 작품에 대하여 최대한의 찬사를 안 드리기 때문이거나, 군의 작품에 대하여 군이 생각하는 바와 똑같은 생각을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네. 그러나 이렇게 꼭 자기 마음에 맞는 비평가들, 유사 이후 아직 어떤 작가고 가져 본 적이 없네. 그러나 그런 비평가가 있다면 과연 군은 만족하겠는가? 잘 생각하여 보게. 또 작가 이외에 그런 종류의 비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도 일고하여 보게. 존재가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일세.

너무 길어졌네. 이제 정말 그만 두겠네. 부디 좋은 작품 많이 쓰게.

(《조광》, 5권 5호, 1939. 5. 1)